

모두가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이용웅 | 前연합뉴스대전충남지사장



정부의 성급한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과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 촛불 시위, 이로 인해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 국민 신임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 일본 수상의 독도 관련 망언과 미국의 독도 표기 오류, 상대방 탓만 하며 헛돌고 있는 국회, 기대에 못 미친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성과, 천정 부지의 고유가에 휘청대는 정부의 경제정책,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부 빈익빈 현상, 줄줄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 갖가지 명목의 세금폭탄 등으로 점차 더 피폐해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수 십년 끊임 줄 모르는 노사갈등과 파업 시위, 대졸자 및 석사 박사 등 고급 인력의 취업난과 고용불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구태를 벗지 못해 의혹만 증폭시킨 삼성비리 폭로사건 수사, 입시문제와 조기 해외유학 붐 등 영어 교육 하나 해결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 국민세금 축내며 철 밥통에 안주하려는 일부 무능 공직자들.

이런 유들의 외우내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주소다. 혹자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나라 살림살이를 잘못해 온 역대 정권과 현 정권의 지도자와 지도층의 탓이 크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과 현행 제도상 권력 감시기능의 맹점 및 여론을 호도하며 국론 분열에 한몫 해 온 언론 등에 그 탓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일리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보다는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못살겠다는 데 맥없이 공론만 일삼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선과 총선을 치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식상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고 국회도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선택,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만큼 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허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국민 신임도는 낮 뜨거울 정도로 낮아졌고 여기저기에서 “잘못 선택했다”느니, “배신당했다”느니 원성이 높아 가고 있다. 심지어 퇴진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다. 국민의 먹거리인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두고 서둘러 미국과 협상하는 바람에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설득력이 약하며 조급한 성과주의 내지 지도력 과시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자란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란기에 나라의 기틀을 세워 바로잡거나 가난과 혈벗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한 토대를 마련한 업적 또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또한 민주화에 기여한 공이 크나 아집과 고집, 독선, 무능 등으로 실정한 면이 적지 않다.

‘나랏님은 하늘이 낸다’고 했다. 하늘은 천심이요, 천심은 곧 민심이요,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뜻이다. 비록 투표에 의한 것이지만 지도자는 백성이 뽑아준 것이요, 백성이 뽑아준 것을 하늘이 받아들이는 것인 만큼 지도자가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역대 대통령들은 하늘은 고사하고라도 백성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필자는 위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해 단편적이거나 공과를 지적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은 대통령은 그가 독재자였든 민주투사였든 간에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두려워하겠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광역 및 각 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회의원 또한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어느 정권에서든 한마디로 기대 수준 이하의 평이었다. 혹자는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각종 이권 개입 등에 눈멀어 녹봉만 축내는 이들을 싹쓸이했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주인인 백성은 줄 것 다 주고 뺨맞는 꼴이니 국민들만 봉인 셈이다.

따져 보자.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로 인한 국민저항과 갈등, 일본 수상 독도 자국영토 주장, 미국의 독도 표기 오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평성 논란, 고급 인력 취업난 등의 문제가 정녕 국민들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했다 말인가? 아니면 나라를 책임진 장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삼척동자라도 알 일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격언이 있듯 그래도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으면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처럼 지역주의에서 깨어나야 하고 각종 부정·부패·비리, 권력 남용, 독선, 권위주의에서 깨어나야 하고 상생 없는 경쟁 제일주의와 정경유착에서 깨어나야 하며 지역·집단·부처 이기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듯 투명한 국가사회야말로 정의가 바로 서고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